

"'불교의 가치'와 '삶의 질' 조화 절대적 과제"

☞ 6면에서 계속

(禪)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도 불교학의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불교의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보광 스님 – 고려 불교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행결사체나 수행결사체말고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는 지금의 한국불교가 200, 300년 후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시사적입니다. 종단사가 남겠습니까? 아니면 신행이나 수행결사체가 남겠습니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행 방법은 재편돼야 합니다. 최근 간화선에 대한 한계와 효용이 문제시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새로운 수행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돼야 합니다.

신규탁 교수 – 선종(禪宗)은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던 당나라의 지식인들에게 적합한 불교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정혜쌍수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불교를 연구할 때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선사들이 이를 어떻게 타개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은 시험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사교입선 역시 경전을 열심히 읽고 통찰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진실한 동기'를 찾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교(禪敎)의 관계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허우성 교수 – 과거에는 불교의 범위를 절집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깨달음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어떻게 보고 이끌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간디는 인도, 남아프리카, 영국 등지에서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국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불교도 사회를 분석하고,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동기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상적인 깨달음만을 주입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현대에서 불교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광 스님 – 일본에서 공부할 때, 제가 "성불하십시오"라는 말을 하자 정토종계 일본인 스님이 깜짝 놀라며 "금생(今生)에 깨달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자신은 깨달음보다는 대중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자력신앙인 선(禪)은 '성불병'을 좇다 사회를 망각하기 십상입니다. 염불을 주로 한 정토 신앙도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생각입니다. 물건을 보는 것은 눈이지만 빛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는, 지혜를 용(用)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허우성 교수 – 비체지용(非體智用)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그 후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봉사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 불교가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동국대는 석·박사과정에 응용불교학 교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지만,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용불교'라 했을 때 응용의 영역을 불교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광 스님

"불교학의 목표 깨달음 이르도록 도움주는 학문"



허우성 교수

"한국불교 세계화 나라별 특성고려 보편성에 주목"



신규탁 교수

"시대별 연구 충실 순수 종교성 추구 이상세계 탐구"



유승무 교수

"불교학자뿐 아니라 타전공학자 연구물 자료로 적극활용"

보광 스님 – 응용불교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현재, 미래의 불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학문들은 서구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잖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의 학자들이 응용불교를 학문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아동학, 불교경영학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문의 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응용불교학 분야가 있고, 장기적인 응용불교학 분야가 있습니다. 아동, 문화재 관련 분야는 당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에 불교전문대학원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가 있는 국제포교사, 국제역경사, 선치료사 등을 양성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건국대학의 경우 음악 치료로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용불교를 전문분야로 만들고 이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응용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기초를 다져가야 합니다.

사회자 – 불교 전공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도 끌어들여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광 스님 – 그렇습니다. 여기에 응용불교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연구회와 같은 소그룹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교단에서는 이들 소그룹에서 나오는 자료집을 집대성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허우성 교수 – 역시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했을 때, 100년 전과 지금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생은 깊은 신심을 가졌다면 지금의 중생은 소비자로서 자본주의에 물든 소비자입니다. 즉 자본주의적 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용불교학은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학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대만이나 일본은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그 속에서 불교계의 활동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의 논의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보광 스님 – 참여불교는 응용불교학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불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양성될 때 가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치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자 – 성공한 CEO(최고경영자)들의 가치관을 조사해 봤는데, 21세기형 경영의 리더십은 불설의 패러다임 그 자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광 스님 – '제행무상(諸行無常)'이나 사성제, 팔정도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교계에서 응용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 체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자 – 불교학의 지평을 사회 속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보광 스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허교수님의 지적처럼, 현실적인 논리와 불교의 가치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허우성 교수 –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대안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인드라망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서구의 근대화와 함께 나타난 자본주의가 야수성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식민이었던 대중을 시민으로 해방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교단에서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 논리와 불교의 가치 사이의 괴리감을 없애는 방편도 됩니다. 조계종을 가리켜 '남성위주의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먼저 이런 전근대적인 요소를 없애는 문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외에 기복성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보광 스님 – 기복성을 제외하고 종교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복'을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는,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실화하는가, 그렇지 않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현상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으로만 다룰 수 없습니다.

신규탁 교수 – 응용불교학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는 학문이고 또한 자본주의 틀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방법,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오늘날 불교는 세속적인 삶 이외에도 행복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간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불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읽다보면 상상으로만 가능한 세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부처님은 세간의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중생들의 눈을 돌리고 집착과 탐욕을 여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응용불교학은 바로 그러한 상상의 세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우성 교수 – 수행자는 어떤 시대이든지 세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남다른 삶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삶을 하나씩 펴내는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는 인류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불기 2545년 성탄절(부처님 오신날) 봉축

봉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 공동발원문** 축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희망의 새세기 21세기의 첫 부처님 오신날을 맞는 뜻깊은 이날 남과 북(북과 남)의 전체 사부대중들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조국통일기원 법회를 열고 장엄한 범종의 울림에 실어 우리의 간절한 민족통일의 발원을 올립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의 미혹중생들을 구제하여 온갖 고로부터 해탈시키려고 이 땅에 오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우리 불교도들은 5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나라와 민족의 분열이라는 가슴아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고는 고 중에서도 가장 큰 고이며 이 고에서 해탈하는 유일한 방도는 조국통일입니다.
우리 불교도들과 7천만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오매불망 희구하여 왔으나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북남) 최고지도자들의 역사적인 만남과 6·15 남북(북남) 공동선언의 발표로 굳게 닫혔던 통일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루빨리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고 남북(북남) 삼천리 조국강산에 융성번영하는 통일된 나라, 화합된 조국을 세우기 위하여 6·15 남북(북남)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겨레 모두입니다.

우리들은 6·15 남북(북남) 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행에 나서겠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지혜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 남과 북(북과 남)의 불교도들은 우리 민족의 결집된 역량과 공조로 통일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우리 불교도들은 남과 북(북과 남), 종단과 단체를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나 불법을 받들어 행하는 불자답게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화합하여 올해를 우리 민족이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밝혀나갈 것을 굳게 서원하면서 이 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불기 2545년 5월 1일
불기 2545년 성탄절(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 불교도 동시법회 참가 사부대중 일동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 합장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일승종, 보문종, 원융종, 총지종, 원효종, 법화종, 조동종, 염불종, 법상종, 진언종, 용화종, 법륜종, 본원종, (재)일붕선교종, 대승종, 삼론종, 열반종, 미타종, 여래종, 대각종